

Art Basel HongKong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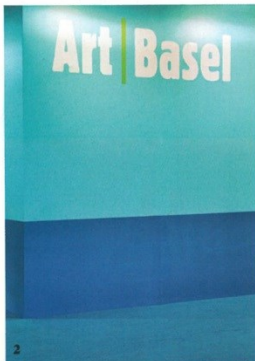
May, 2016 | 안동선 에디터



지금으로부터 2백여 년 전 홍콩은 정글로 덮여 있었고 해안에는 어촌마을이 흩어져 있었다. 그 조용한 항구(홍콩은 중국어로 '항기로운 항구'라는 뜻)는 현재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 정신없고 빠르고 분비는 메트로폴리스가 되었다. 세계지도에서 쌀 한 톨 크기밖에 안 되지만 국제적인 무역 중심지이고 중국적 가치와 서양의 기업 이념이 만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항공교통의 요지인 홍콩. 홍콩은 아시아 정치 경제의 '허브' 역할을 맡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몇 년 전부터 아시아 아트마켓의 '핫 플레이스'로 그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라 손꼽히는 아트바젤이 스위스 바젤과 미국 마이애미 비치 다음으로 홍콩에 아트바젤을 론칭한 이유에는 미술품 거래 면세 혜택과 더불어 세계 각국 금융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아트위크 동안 홍콩에 머물면서 도시 곳곳에 예술적 공간이 석류알처럼 촘촘히 차 있다는 걸 발견하고 또 다른 이유를 확인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술계의 지형도를 바꿀 아시아 제1의 아트 시티 자리를 두고 싱가포르, 상하이 등과 경쟁했던 홍콩의 오늘날 입지에 대해 일말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실감한 것이다. 이층버스가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고 컬러풀한 크레인이 부둣가에서 저마다의 댄스를 펼치는 풍경 사이 사이에 자리한 아트스페이스는 차차 소개하기로 하고 먼저 아트바젤 홍콩의 프리뷰 오프닝 날로 들어가보자. 아트바젤 홍콩의 공식 개막일은 3월 24일부터 사흘간이지만 전날 저녁에는 베르나사지(Vernissage) 오프닝이라고 해서 페어를 자축하는 파티 분위기로 저녁 9시까지 불을 밝혀준다. 그날 오프닝과 그 전날에는 프리뷰 오프닝으로 미술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그 전날인 22일에는 셀러브리티나 거물급 컬렉터, 미술관 관장 등이 가장 먼저 페어장에 들어올 기회를 갖는다. (이날, 지난겨울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 VIP 오프닝에 모습을 드러냈던 레오 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또 한 번 페어장을 찾았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수상 배우라는 것.)

어느 때 페어장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각각 판권 포인트가 다른데 VIP나 프리뷰 오프닝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에드리언 브로디, 캐롤리나 쿠르코바 등의 셀럽과 무라카미 다카시나 엠마누엘 페로탱(갤러리 페로탱 대표) 등의 미술계 유명인사를 목격하는 재미를, 베르나사지 오프닝 타킷을 얻었다면 달리기 스타트 라인에 선 것처럼 아트마켓의 개성에 앞서 달아오른 풍기를 삼켜인 기포와 함께 만끽할 것. 개인적으로는 퍼블릭 오프닝 마지막 날 페막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를 가장 좋아한다. 판매권 그림의 배송을 점검하거나 갤러리 가지고 돌아갈 제고 상품을 포장하는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아트페어의 이면도 엿보고 열기와 흥분이 누그러지며 걸터다니는 페어장을 느릿느릿 걷다가 새삼 보지 못한 작품들을 발견하고는 걸음이 빨라지고 가슴이 뛰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시각 신임 디렉터로서 두 번째 아트바젤 홍콩을 만든 아델린 우이가 갤러리 부스를 찾아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트바젤 동남아 VIP 고객관리 매니저로 활동해온 그녀는 지난 해 불과 개월 10주 전에 디렉터에 임명됐음에도 상공리에 첫 페어를 치르고 올해 좀 더 우



1 오테 피인 이츠 부스
조요시 히사카도의
'After That -moon-'
(2015)와 '시네마'의
호박이 비친다
2 아트바젤 홍콩의 메인 디자인
3 부스 입구 사이로 맨디
워홀의 'MAO(F.S. 90-99)
10 Screens
(Authenticated)(1972)가
보인다



디카프리오 색선에 참가한 대니얼 리트. 캘러버는 뮤지엄드 출신의 제소 추순이 작품에 걸맞게 두 손뼉을 치며, 서순 모리다. 이이도. 문화기술 분야의 최은영. 그리고 케네디가 열광 받은 작가인 두루임과 삼천정현은 밝은색, 레이먼 배넌, 물치. 건축적 배경 사이의 인물들을 경험시키는 보컬리스트가든도 등장한다.



국제 갤러리 부스에 내걸린 자신의 작품 Ecarture No.101-82 (1982) 앞에서 포즈를 취한 백석호 화백



인카운터 세션에서도 특히 조명을 받은 한걸음의 자유 철학 연작 당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달리(2016)

로운 모습이었다. 지난 1월, 서울을 찾아 <바자>와 인터뷰를 가진 우이는 페어의 상업적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균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무조건 팔릴 만한 작품을 전시하지는 않는다. 물론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긴 하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페어의 모든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전시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시아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트페어를 선보이는 것이다. 말했듯이 아트페어의 특성상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좋은 작품이 많이 모여 있으면 상품성은 자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게다가 최근엔 단순히 작품을 사러 온 컬렉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미술관 큐레이터들도 아트바젤을 연구와 네트워킹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작품성, 상업성 그리고 대중성의 삼박자를 잘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녀 말대로 아트바젤 홍콩은 단순히 35개국에서 온 2백39개 갤러리들의 부스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밀도 높은 전시의 집합체로서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우선 홍콩 컨벤션 전시센터 1층과 3층의 거대한 전시장을 여러 색선으로 나누어 미로처럼 정선없이 이어지는 부스들을 낫 놓은 상태로 휘적거리게 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메인 전시인 갤러리(Galleries) 색선에서는 한껏 알은체 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성이 드높은 작가들의 작품을 우아하고 짜임새 있게 선보였다. 뉴욕의 마리엔 보스키(Marianne Boesky) 갤러리 부스에는 여든 가까이 된 갤러리의 슈퍼스타 프랭크 스텔라의 티크나무로 된 거대한 조각 ‘Wooden Star I’이, 런던, 뉴욕, L.A.에 지점이 있는 취리히의 하우스 & 워스(Hauser & Wirth)에서는 루



중국 작가 장 린(Zhang Lin)의 2014년 도쿄 현대미술관의 대형 작품 ‘경인 상자 18 큐브’(18 Cubes) (2015/2016) 관람객의 두루마리 사진이 있고 있는 구조로 관람객이 서로 남기기도 한다



하우스 & 워스 갤러리에서 아쉽게도 선보인 페어리스 부스주주의 ‘Spider Couple’(2003)

르주아, 칼다, 필립 구스통 등의 거미 모티프 작품으로 부스를 꾸몄다.) 데이비드 즈위너(David Zwirner) 갤러리에는 벨기에 아티스트 마이클 보레만스(Michael Borremans)의 최근작들이 걸려 있었는데 얼룩한 캐리커, 요상한 클로즈업, 불안정한 분위기의 회화 작품으로 단숨에 마음을 사로잡았다. 음침하게 코믹하면서 그로테스크하고 어딘지 모르게 항수 어린 느낌이랄까? 설렁자 데이비드 즈위너는 그가 이번 페어에 참여해준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다섯 개의 작품을 맡겨주었는데 모두 몇 시간 만에 판매되었다.” 남아프리카 최고의 아트 딜러 중 하나로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 갤러리가 있는 굿맨(Goodman) 갤러리에서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전시를 가졌던 남아프리카 출신의 윌리엄 켄트리지의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겨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알반 베르크의 오페라 <룰루(Lulu)>를 감독해서 큰 성공을 거둔 그는 대형 그림과 칠을 소재로 한 2차원의 머리 조각을 선보였다. 이 작품들은 켄트리지의 최근 비디오 작품인 ‘모델 오페라에 대한 노트(Notes Towards a Model Opera)’와 관련된 조각들로 2015년 베이징의 UCCA(Ullens Centre for Contemporary Art)에서 열린 회고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필름(Film) 색선에서 상영된 켄트리지의 애니메이션 작품 ‘방영을 위한 10개의 그림’은 10개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인종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변모해가는 남아프리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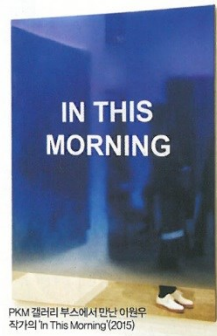


트르마라와의 개인 작품은 아시아의 급변하는 문화 환경, 사회적, 정치적 지류를 컬러 배너로 표현했다

첫 해부터 만 이상의 갤러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갤러리로 채우면서 아시아 대륙을 소개하고자 노력해 온 아트바젤 홍콩은 터키부터 뉴질랜드, 중동, 인도, 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역 갤러리들의 큐레이터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인사이트



LA 나이트 갤러리에서는 디스커버리 색션을 통해 미라 등사의 작품을 집중도 높게 선보였다. 내은 불빛을 밝힌 캔버스에 여성 누드화를 담거나 시체에 뛰어 찬장에 매단 여성의 조각 작품들은 남강없이 판매되었다



PKM 갤러리 부스에서 만난 이원우 작가의 In The Morning (2015)

(Insights) 색션을 마련해두고 있다. 어떤 색션이든 아트바젤 홍콩에서 발견한 작가들의 낯선 이름은 대개 아시아 사람의 것이었다. 2010년 파리에서 홍콩으로 완전히 터전을 옮긴 드 사르트(De Sarthe) 갤러리에서 '모던 마스터' 작품들과 함께 선보인 왕 귀펑(Wang Guofeng), 중국 '현대미술의 영향력' 있는 10인에 매번 이름을 올리는 컬렉터이자 큐레이터인 펄 램 갤러리에서 소개한 티베트 작가 가초(Gonkar Gyatso), 대만의 예술라이프 갤러리 부스에서 단독 전시를 연 데이비드 다이오(David Daio) 등. 특히 홍콩의 대표적인 갤러리인 오라오라(Ora-Ora)는 중국의 전통적인 회화를 재해석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해 연일 젊은 관람객들로 붐볐다. 30대 중-후반의 중국 작가들인 후양단(Huang Dan), 썩 자난(Peng Jian), 썩 웨이(Peng Wei)의 작품에는 대부분 판매되었다는 표시인 빨간 도트가 붙어 있었다.

이런 아트바젤 홍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한국 작가와 갤러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갤러리 색션에서는 줄곧 홍콩을 찾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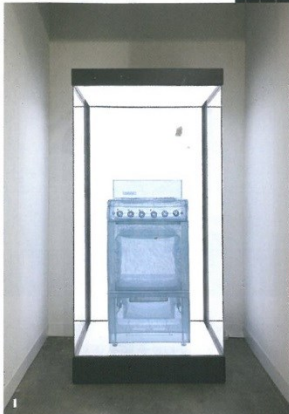
프리 색션에서 선보인 필리핀 스텐 크로비드 소벨의 작품(Cargando Daboy)(1989/2010)

국제, 아라리오, PKM, 학교재 등이 올해도 페어장에 등지를 틀었다. 국제갤러리에서는 허종현, 박서보, 이우환, 권영우 등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아니시 카푸어, 빌 비올라, 도널드 저드의 대표작들이 설치되었고 그 사이로 박서보 화백의 휠체어가 리드미컬하게 지나갔다. 몇 해 전부터 완성도 높은 단색화 전사를 여러 차례 선보였던 블룸앤포(Blum & Poe)를 비롯해 단색화를 가지고 나온 외국 갤러리들이 자주 눈에 띄었고 판매도 수월해 보였다. 인사이트 색션에서는 최정화의 작품을 소개한 박어숙 갤러리가, 최근 개인전을 가진 이혜민과 이재용의 작품을 선보인 갤러리EM 등이 참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개인전 혹은 2인전 형식으로 젊은 작가를 소개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ies) 색션에 참여한 313아트프로젝트, 2014년 삼성 리움미술관 아트스펙트럼 대상을 수상한 이원의 개인전으로 꾸며진 부스는 한국 가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비디오 및 실제 가발 오브제로 그냥 지나치기 힘들 정도로 눈길을 끌었다. 동아시아의 후기식민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메인드인' 시리즈 가운데 '메이드인 코리아'의 대표작들은 1960년대 호황을 이루었던 한국의 가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며 "국가 중심의 권력화된 집단적 가치가 당시 다양한 사회적 문제(특히 노동 문제)를 야기했던 사실에 초점을 두고, 현대의 관점에서 과도기로서의 근현대 산업이 가지는 의미에 접근한다"는 의도를 밝힌다.

앞서 말한 우이의 말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색션으로 부스와 부스 사이의 공간에 대규모 설치작품을 소개하는 인카운터(Encounters) 색션을 언급하고 싶다. '우연히 마주치다, 선물거나 뜻밖의 대상과 접하다'라는 뜻의 이 색션에서는 16개의 문체작품들을 선보였다. 시드니 아트스페이스의 상임이사 알렉시 글래스-캔토는 이 색션을 큐레이팅하며 "장소가 정해져 있는 설치작품이 '만남'에 관해, 그리고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관찰에 대한 응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인카운터 색션은 탁 트인 공간을 선사하며 약속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출신 아티스트 트리오 트로마라마(Tromarama)의 '개인 폭동(Private Riots)'이 시계탑처럼 활용됐다. 1984~1985년생 작가들은 아시아의 급변하는 문화 환경,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정치적 및 시각적 지류를 바다에서 천장까지 우뚝 솟은 거대한 타워에 명량한 컬러 배너로 표현했다.

인도네시아 태생의 틴틴 울리아(Tintin Wulia)의 '집과 다른 지하에서 나온 5톤(Five Tonnes of Homes and Other Understories)'은 홍콩에서 리어카를 끌며 판지를 모아 재활용센터에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을 추적하며 만든 작품이다. 작가는 2년 동안 이 판지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행방을 따라다녔는데 그중에는 일요일마다 필리핀 가정부들이 일주일 중 단 하루의 휴일을 즐기려고 공공장소에 모여 담소를 나눌 때 깔고 앉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한다.

이 색션에서는 지난해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 선보인 환경이 작가의 대규모 자수 회화 연작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들리에'도 만날 수 있었다. 작가는 중개인을 통해 자신이 고안한 자수 디자인을 복한의 장인에게 전달하고 완성한 자수 작업을 이어 붙여 대형 설치작업으로 만든다. 화려하지만 흔들리거나 바닥에 추락한 상들리에에는 거대 권력의 붕괴를 은유하고 고립된 북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겨난 우연성을 그대로 작품으로 포용한다.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에서 볼 때만이 하게 다른 느낌을 주는 상들리에들 사이에서 만난 국제갤러리 대외협력 디렉터 진민경은 이 작품이 해의 컬렉터



1 신마올루의 나라 로에슬러 갤러리에서 선보인 올리오 레 파르크의 'Cosion a Lames Reflechissantes'(1966-2005)만으로 관람객이 지치지 않고 있다

1 레민 마린 갤러리 부스에서는 'Stove, Apartment A, 348 West 22nd Street, New York, NY 10011, USA'(2013)를 비롯해 서도호 작가의 여러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2 유우전 갤러리가 김 카다시안의 휘태를 찍은 사진 작품은 컨템퍼러리 파인아트 부스의 외벽에 걸려 많은 관람객들의 셀피 포인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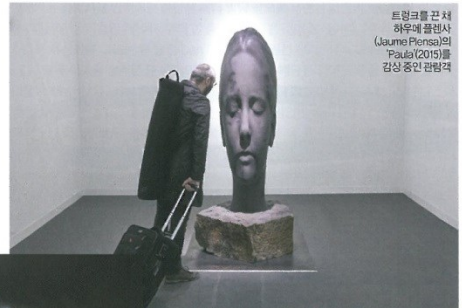


들과 미술기관, 외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바람에 분주해 보였다. "관객들은 한국의 동시대 작가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 발견하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이것이 단순한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에 그치지 않고 미술적으로도 어떠한 소재와 재료를 통해 구현했는지 그 과정이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경험 이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퍼블릭 오픈닝 둘째 날부터 안내원들은 홍콩 컨벤션 전시센터 입구에서 영어와 중국어로 타켓이 모두 팔렸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들고 방문객들을 맞았다. 중국 본토의 여러 학교와 사업장에서 미리 단체 예매를 한 데다 부활절 연휴가 겹쳐 총 관람객이 7만 명을 넘으니, 아트바젤 측에서 보낸 리포트의 "모든 면에서 기록적인 해"라는 표현은 대체로 사실이었다. 수익에 있어서도 "국제 아트마켓의 견제함을 둘러싸고 의심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바젤은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첫날 딜러들은 '큰 건'을 성사시켰다.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evy) 갤러리는 루돌프 스타링겔(Rudolf Stingel)의 유화작품 '무제(Untitled)'를 1백90만 달러(약 22억원)에, 박서보의 'Ecriture 36-73'을 25만 달러(2억8천만원)에 팔았다. 앞서 말한 데이비드 즈위너 갤러리에서는 마이클 보레만스의 작품 5점과 퀸 류안의 'Forever'를 각각 1백60만 달러(18억원)에 판매했다. 무르진스카(Gmurzynska) 갤러리에서는 페르난도 보테로의 거대한 회화작품 'At The Park'를 1백20만 달러(13억7천만원)에 팔았고, 레민 마린 갤러리에서는 서도호의 'Stove, Apartment A, 348 West 22nd Street, New York, NY 10011, USA'를 15만 달러(2억원)에, 'Karma'를 7천 달러(8백만원)에 판매했다. 티나 켝(Tina Keng) 갤러리 대표 티나 켝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대만에서는 컬렉터들이외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바이어들이 특히 강세"였고 많은 갤러리들이

컬렉터들뿐 아니라 주요 미술기관 및 미술관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다. 수많은 작품들에 둘러싸여 정신이 아득해질 때는 전시장 밖 중앙홀에서 통창 너머로 보이는 부두의 풍경을 바라보거나 풍성하게 마련된 다양한 부스를 살펴봤다. 잡지(Magazines) 색선 부스부터 주류 브랜드의 이벤트 부스도 있었지만 아시아아트라이브, 비디오타주 등 홍콩의 특색 있는 비영리기관들이 마련한 부스에서 열린 토크가 펼쳐지며 복잡거리는 모습이 활력 넘쳤다. (아트바젤 홍콩에서도 '살롱(Salon)'과 '대화(Conversations)' 색선을 통해 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밤이 되자 사람들은 발코니에 삼삼오오 모여 아트바젤 기간 동안 밤하늘을 수놓은 공공설치미술인 ICC 라이팅 프로젝트를 감상했다. 4백90미터 높이의 국제상업빌딩(ICC)에 타츠오 미야지마는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빌딩 외벽에서 마치 폭포처럼 떨어지는 '시간의 폭포(Time Waterfall)'를 선보였다. 0은 일부러 제외했는데 각 숫자가 삶의 장을 뜻하고 0은 삶이 없는 것, 즉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관통 강가에서 유한한 삶이 명멸했다. 18



트렌트를 끈 채 하우에 플렌사(Jaume Plensa)의 Paula(2015)를 감상 중인 관람객

ICC 빌딩 전면에 펼쳐진 타츠오 미야지마의 라이팅 아트기 아트바젤 기간 내내 저녁하늘을 수놓았다



친한형 색감의 조 임리더(John Arnteder)의 회화 작품 앞에서 감상하는 걸러리 직원들의 모습도 그림 같았다